

첨단산업 정책자금, 전남광주 지원액 고작 ‘3%’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 정책자금 가운데 최근 3년간 전남광주지역에 지원된 금액이 전국의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융자 지원액의 약 60%가 수도권에 쏠린 가운데 지역은 사업 신청 자체도 저조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제 자금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 21일까지 ‘국가첨단 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을 통해 실행된 대출은 전국 107건, 2896억3000만원으

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광주 지원액은 86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며, 전남은 대출 실행 실적이 없었다. 광주·전남을 합쳐도 전국 지원액의 3%에 머문 셈이다.

해당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2024년 시작했다. 기업의 신청과 적정성평가, 은행 대출심사 추천, 은행 심사 등을 거쳐 지원이 확정되는 구조다.

지역별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광주는 지난해 3건, 111억 6000만원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2건, 86억6000만원이 은행 대출심사 추천을 거쳐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다. 2024년과 올해

최근 3년간 86억6000만원…전남 대출 실행 ‘0’ 수도권에 59.9% 집중…지역 신청도 5건 그쳐

조사 기준일까지는 신청과 지원 실적이 없었다.

전남은 지난해 1건, 10억원을 신청했지만 은행 대출심사 추천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는 1건, 30억원을 신청해 추천 단계에 올랐으나, 지난달 21일 기준 대출 실행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전남의 누적 신청은 총 5건, 151억 6000만원이었다.

전국 신청 366건 가운데 지역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자금 지원 실적뿐 아니라 사업 참여 규모 자체가 작다는 점에서 지역 기업의 수요 발굴과 신청 지원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는 전체 지원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자금이 공급됐다.

서울 459억7000만원, 경기 1156억5000만원, 인천 118억6000만원 등 수도권 지원액은 총 1734억8000만원으로 전국의 59.9%를 차지했다. 대출 실행 건수도 서

울 15건, 경기 39건, 인천 6건 등 총 6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연도별 지원 실적은 2024년 32건·900억원, 지난해 41건·1200억원, 올해 9월 21일까지 34건·796억3000만원이었다. 기업 규모별 누적 지원 건수는 중소기업 91건, 중견기업 16건이다.

정책자금이 지역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려면 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술력과 사업성뿐 아니라 지역 여건과 산업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의원은 현행 융자사업 평가가 개발 내용과 목표의 적정성, 사업수행 체계, 사업화 전략, 사업화 가능성, 연구개발 역량 등 사업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 기업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청 단계의 참여 확대와 함께 추천 이후 실제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유를 살피는 작업도 필요하다. 지원 절차 상 은행은 추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 실행 여부와 금액을 확정한다.

허 의원은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특화단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평가체계에서도 지역 기업이 가진 여건과 지역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폴리텍대 나주 전력기술교육원, ‘전국 합격자 10%’ 배출

과정평가형 전기기사산업기사 첫 시험…10명 합격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원장 김응구)이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과정평가형 전기기사산업기사 시험’에서 전국 평균이 두 배를 웃도는 합격률을 기록하며 우수한 교육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에서 총 454명이 응시해 104명이 합격했으며, 전국 평균 합격률은 22.91%였다. 전력기술교육원은 21명이 응시해 10명이 합격해 47.6%의 합격률을 보이며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었다.

시험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합격자 104명 가운데 약 10%를 전력기술교육원 교육생이 차지하고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합격률을 기록해 교육과정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전기기사산업기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에서도 50%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자격취득을 이어가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전공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에서 일

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비전공자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격취득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력기술교육원은 해당 과정을 4개월 단기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수한 교수진과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최신 교육시설 및 장비를 바탕으로 짧은 교육 기간에도 높은 자격취득률을 기록했으며, 재학생 교육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교육 기간 동안 국가기술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함께 취업 정보 제공, 진로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자격증 취득과 취업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교육원의 성장에는 나주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나주시는 교육원 설립 당시 부지를 무상 제공했으며, 운영대 나주시장과 시의회 등 지역 관계자들도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원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력기술교육원은 2027학년도 교육생을 상·하반기 두 차례 모집하며, 상반기 모집은 오는 11월부터 시작한다.

전력설비과, 전기소방과, 신재생에너지과 등 3개 학과를 운영해 전기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 및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호남권에서 다양한 키보드를 직접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가 광주신세계에 마련됐다. 오는 15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키덕투어’ 키보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켄텍, AI·정보보안 융합…전력망 안전 높인다

에너지밸리 워크숍 성료…차세대 기술 공유·협력 모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인공지능(AI)과 정보보안 기술을 집중, 전력망 등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켄텍은 최근 교내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빛가람 에너지밸리 AI 및 정보보안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주글로벌에너지포럼

(NGEF 2026)과 켄텍 에너지AI연구소가 주최하고, KEPS 알키미스트사업단과 AI스타펠로우십사업단,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AI대학원) 사업단 등이 공동 주관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워크숍은 ‘차세대 전력망 안전: 위협에서 실증까지’와 ‘차세대 보안 기술: 새로운 위

협, 새로운 해법’ 등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희태·이현우·신옥철 켄텍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전환과 에너지 보안, 미터스플로잇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 방안, 전력 기반시설의 지능형 진단과 자율점검을 위한 피지컬 AI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자 기술과 대규모 모언언모델(LLM) 등을 둘러싼 새로운 보안 위협과 대응 기술을 다뤘다.

서승현 한양대 교수는 양자 위협과 글

로벌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동향을 소개했다.

김혜성 포스텍 교수는 보안성을 고려한 LLM 경량화 기술을, 정대웅 서울대 교수는 기밀 가상머신에 대한 공격 기법을 발표했다. 이현민 한양대 교수는 DNS와 DANE를 활용한 웹 보안 기반시설의 새로운 접근법을 설명했다.

참석한 에너지·AI·정보보안 분야 전문가들은 최신 기술과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신세계, 16개 브랜드 15일까지 ‘키덕투어’ 팝업

㈜광주신세계는 오는 15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키덕투어’ 키보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팝업에는 SPM, ABKO, COX, 칠키, 한성, 프리플로우, 주연테크, 씽크웨이, 8bitdo, 샌던아트, 키케이션, 로얄루지, 큐센, 체리, 키뵐, 에포메이커 등 16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키보드와 관련 액세서리 등 250여종의 제품을 한자리에

서 선보인다.

이번 팝업에서는 파스텔톤 등 다양한 디자인의 키보드부터 키캡, 키링, 팝레스트 등 액세서리까지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평소 온라인에서만 접했던 제품을 직접 눈보고 소리와 타건감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제품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다.

윤용성 기자 yoi1404@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5항 5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6. 10. 06.

- 발전사업의 명칭 : 신일 2호 별교 장양 태양광발전소
- 발전사업의 위치 : 전남·광주특별자치시 보성군 별교읍 장암리 654
- 발전사업의 면적 : 9,577㎡(약 2,897평)
-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 발전용량 : 1,540.56kW
 - 설비개요 : 태양광발전소
 - 추진계획 : 27년 착공, 28년 상업운전
 - 사업운영기간 : 20년 운영 예정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태양3발전(주대주주 : 오진백)
-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 의견제출 방법

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 1105호(가산동)
전화 : 010-2443-8997 / 팩스 : 02-832-0206 / 메일 : yulara@naver.com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5항 5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6. 10. 06.

- 발전사업의 명칭 : 태일 8호 별교 장양 태양광발전소
- 발전사업의 위치 : 전남·광주특별자치시 보성군 별교읍 장암리 654
- 발전사업의 면적 : 11,666㎡(약 3,529평)
-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 발전용량 : 1,797.32kW
 - 설비개요 : 태양광발전소
 - 추진계획 : 27년 착공, 28년 상업운전
 - 사업운영기간 : 20년 운영 예정
-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태양3발전(주대주주 : 오진백)
-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 의견제출 방법

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 1203호(가산동)
전화 : 010-2443-8997 / 팩스 : 02-832-0206 / 메일 : yulara@naver.com

광고문의

광남일보 신문 지면·홈페이지·온라인·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맞춤형 및 제작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해드립니다.

대표번호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e-mail gnibo3@dium.net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전라도人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구독문의 062-370-7080 / 팩스 062-370-7005

YouTube | **광남일보 iTV**

전남광주의 생생한 뉴스와 현장 이야기

구독 중이신가요? 알림 설정으로 광남일보 iTV와 함께하세요!

LATEST NEWS

전남광주 도로에 자율주행차 200대 뜬다…AI 청년 일자리도 열린다
시로 말소리 분석하고 주차까지 자동화…전남광주 청년창업이 달라졌다
취업·생계 불안에 무너지는 청년들…전남광주 30대 자살률 급등

대표문의 : 062)370-7070